

광주 재개발지역 ‘쓰레기 지옥’ 언제까지…

우산동·월산동 등 불법투기 심각…슬럼화로 범죄구역 변질
고통 받는 주민들 대책 요구에 지자체 “조합이 알아서 할일”

광주지역 재개발 구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서 재개발만 시작되면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별다른 감시장치가 없다보니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슬럼화가 진행되며 범죄 구역으로 변질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재개발 구역 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선 조례 등을 개정 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광주시와 자치구에선 “재개발 조합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사실상 무수를 놓고 있다.

잡다못한 주민들이 복구청에 ‘쓰레기를 다시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미온적 입장이다. 구청이 쓰레기를 치워야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선 땅 소유자인 재개발조합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또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라도 쓰레기 방치나 무단 투기시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책임은 조합에 있으며,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계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889세대가 입주하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재개발 구역(4만4235㎡)은 쓰레기 등이 쌓이는 과정에서 슬럼화되면서 빈집탈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년 넘게 월산동에서 살고 있는 최중호(61)씨는 “월산동 재개발 구역은 물론 그 주변에도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철을 노리는 도둑도 극성을 부리면서 인근 동네 분위기가 매우 어두워졌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구역 인근에 사는 남모(75)씨도 “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약자들로, 방치된 쓰레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월산1동 주택재개발조합 관

계자는 “조합에서도 최근 대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인근에 있던 쓰레기 등을 치우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남구청은 월산동 재개발 구역은 조합 소유 사유지로 구청이 쓰레기를 치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은 특히 불법투기를 했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가 없을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남구 환경미화업무 담당은 “현 구청 인력으로 재개발 구역 내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재개발 구역의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선 단순 쓰레기 투기 5만원, 1kg미만 쓰레기 투기 10만원 등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훨씬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이 떠난 광주시 북구 우산동재개발구역 일대에 각종 쓰레기와 철거 잔해 등이 방치돼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대 도서관서 음란행위 3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은 22일 광주의 한 여자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역음란)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의 한 여자대학교 지하 1층 도서관 열람실 구석진 곳에 앉아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취업준비생인 A씨가 음란행위를 한 곳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일반남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A씨는 경찰에서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여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얼굴 첫 공개

“췌장 쪼르겠다”…공주 치료감호소서 한달간 정신감정

서울강서구PC방 아라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사진)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얼굴도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씨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며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천서를 나선 김씨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우울증 진단서를 낸 것

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씨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 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사망사고 뺑소니범 잡고 보니 음주 삼진아웃된 무면허 30대

광주광산경찰, 영장 신청기로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회사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2시간만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5분께 광산구 장록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B(70)씨를 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주변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회사원인 A씨는 그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며 광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로 핸들을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사고 2시간 만에 한 시민의 제보로 잡혔다. 앞 유리가 파손된 차도로를 달리던 박씨의 차량을 보고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제보를 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장소 주변을 탐문해 모델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박씨를 체포했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B씨는 국가유공자로 은퇴 후 경비원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평균임금정정 불응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 9만2800원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왜 썰러봐” 화장실 끌고가 폭행한 조폭 철창행



○광주의 한 볼링장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종아리뼈 등을 부러뜨린 20대 조직폭력배가 철창행.

○22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힌 중앙오비과 소속 조직폭력배 박모(21)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볼링장 내 옆 라인에서 볼링을 즐기고 있던 최모(24)씨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건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6차례나 폭행했으

며, 최씨는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과 9범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도주해 전국을 돌며 모텔 등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박씨가 광주의 한 PC방에 나타났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계열	모 집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